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1호

발행인 : 김정태
발행일 : 2020년 4월 27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대양판지, 회사노조 2개로 노조파괴 시도

신규지회 대양판지지회 설립!

신규지회인 대양판지지회가 지난 3월 25일(수), 26일(목) 이틀간에 걸쳐 총회를 열고 지회를 설립했다. 대양판지는 청주공장, 장성공장 두 곳에서 박스를 제작한다. 업무 특성상 먼지가 많이 날리는데도 집진기도 갖추지 않았다. 12시간 맞교대로 일하면서 최근에도 2명의 노동자가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졌다. 임금은 공장장 맘에 드는 사람만 더 올려주기도 했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노조가 절실했다.

노조파괴 하려고 회사노조 2개씩이나!

금속노조 설립 움직임이 포착되자 회사는 과장을 비롯해 4명을 시켜 회사노조를 설립하게 했고, 개별면담을 통해 금속노조 탈퇴를 강요했다. 지회가 회사 개입 증거를 앞세워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에 고소하자, 회사는 첫 번째 회사노조를 버려 버리고, 두 번째 회사노조를 만들었다. 결국 대양판지에는 금속노조 대양판지지회, 첫 번째 회사노조, 두 번째 회사노조로 총 3개의 노조가 생겼다. 민주노조를 깨기 위해 자본이 복수노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대양판지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진짜 노조다운 노조로!

회사의 불법행위와 꼼수로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양판지지회 조합원들은 당당하게 투쟁하고 있다. 장시간 저임금에 빈번한 산재사고에 힘들었던 지난 날을 딛고 일어나기 위해 끝까지 민주노조를 지키겠다고 결의하고 있다. 우리의 강력한 연대로 복수노조-노조파괴 반드시 끝장내자.

"해고금지! 총고용 보장! 사회안전망 전면확대! 전태일법 쟁취! 비정규직 철폐!"

2020 세계노동절 대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자본의 공격이 점점 노골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엔텍은 연초부터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구조조정을 시작했고, 코스모링크도 희망퇴직을 일방적으로 실시했다. 한온시스템은 사무직 희망퇴직 등 사무직에 대한 공격부터 시작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절을 맞아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해고금지, 총고용보장을 중심으로 정부와 재벌 대기업을 규탄하는 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 노동절 대회 ***

■ 대전

5/1(금) 11시, 강제징용노동자상 앞
1인 시위 및 현수막 설치 후 대회 진행

■ 충북

5/1(금) 10시30분, 청주체육관 앞
요구 발표 기자회견 후 행진 (-> 상당공원)